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제2537호 www.metroseoul.co.kr

청와대-세종청사 첫 영상 국무회의 18일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영상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뻥 뚫린 개인정보 전국민이 당한다

카드·이동사 찍고 택배·복덕방까지 확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A씨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대출·도박 부동산 투자 권유 스팸 문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몇 해 전 옥션과 네이트온을 시작으로 국민 롯데 농협카드 티몬 KT CJ대한통운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유출 사례만도 8번에 달하는 그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사고파는 개인정보 차라리 내가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는 뼈 있는 농담을 주변에 건네고 있다.

다음달 경기도 신도시 나 XX 아파트 입주를 앞둔 B씨는 최근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인근 부동산에서 전세를 내놓으라는 전화 권유를 한 것. 가뜩이나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신경이 날카로운 그가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따져 묻자 매물 중개업자는 "그냥 어디서 받았다"는 두루뭉술한 답변 후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당장 국민들은 스팸문자에 시달리고,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털어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카드사 이동통신사 소셜커머스 쇼핑몰 택배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털렸다.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상품화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에는 택배사마저도 개인정보 유출의 창구로 활용된 것이 확인됐다.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정보를 빼낸 뒤 판매,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일당이 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에서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 이어 지난 6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인한 981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만 보더라도 해킹을 시도한 이들도 문제지만 IT전문기업인 KT가 이처럼 쉽게 보안이 뚫린 데 대해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KT 역시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 황창규 회장이 직접 나서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황 회장은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7일 "2012년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부동산업계 단전불감증 만연

지난달 21일 경남 대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명록이나 부동산 분양 계약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 35만 건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동산 업체 직원 강모(36)씨를 구속했다.

강씨의 경우 개인정보를 거래해 적발된 매우 드문 사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의 소규모 회사 또는 영업사원 개인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탓에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2면에 계속>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벤져스 2'에 출연하는 영화배우 수현(가운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촬영에 대한 협약식이 체결됐다. /손진영기자

강남역·마포대교등 보름간 교통 통제

美 블록버스터 영화촬영위해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강남역사거리와 마포대교 등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2'의 전투 장면과 차량 추격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벤저스2' 촬영장소는 강남역 사거리와 마포대교 외에 청담대교, 세빛둥둥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월드컵북로, 단천주차장 문래동 철강거리 등이다.

마포대교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11시간30분 동안 교통이 통제된다. 다음달 6일 진행되는 강남대로 촬영에는 오전 4시30분부터 7시간 30분간 도로가 통제된다.

시는 도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촬영지를 경유하는 버스는 임시로 노선을 조정하고, 촬영지 주변 자전거도로도 임시로 우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전광판, 다산120콜센터, TBS 교통방송,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벤져스2' 속 서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현대식 건물이 즐비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도시로 묘사된다.

박대우 서울시 문화산업과장은 "이번 '어벤져스2' 서울 촬영을 발판으로 파급력 있는 해외작품들을 적극 유치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어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현정기자 mk.ss@metroseoul.co.kr

공공재로 전락한 개인정보

기자 수첩
서승희
<경제산업부 기자>

'공공재'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가로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다.

요즘 그래서는 안 될 중요 정보가 공공재로 전락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KB국민·롯데·NH농협을 비롯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줄지어 유출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수년째 KT의 고객인 기자도 예외는 아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니 팝업창이 뜨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라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장 하나가 눈에 띈다. 이어 이름을 시작으로 주민등록번호, 카드결제번호, 카드유효기간, 유심카드번호 등 무려 10가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보였다.

잊을 만하면 또다시 불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 익숙함에 처음엔 분노를 표출했던 피해자들도 이제는 '공공재'라는 우스갯 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공재의 최후다. 주인 없는 목초지를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사용한 나머지 황폐한 땅으로 귀결된다면 공공재가 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공공재의 비극을 떠올려봐야 할 시점이다.

영종도 카지노 외국기업에 개방

유효기간 3년…관광객 유치·경제 활성화 겨냥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시설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입성에 성공했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카지노 시장 개방으로 그동안 국내 진출을 타진해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LOCZ코리아는 아시아 내 대규모 호텔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계 화상 그룹 '리포'와 세계 최대 규모의 게이밍·호텔 서비스·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유한 '시저스'의 합작회사로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467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000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LOCZ코리아가 건설하는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조감도.

LOCZ코리아 측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천 복합리조트를 차질 없이 개장할 예정"이라며 "리포&시저스 양사의 풍부한 개발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국제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유선준기자 rukim@metroseoul.co.kr

신당 정강정책 6·15, 10·4선언 뺀다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명시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해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과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변재일 민주당 측 공동분과위원장은 "정강 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북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존중·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jhj@

"천안함 46용사,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46용사 4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서계 천안함 앞에서 안보 교육에 나선 해군 장병들이 2010년 서해 해상작전 도중 침몰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입대 편견…연예인은 상처

기자 수첩
양성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배우 유아인이 때아닌 병역 논란에 휘싸였다.

1986년생인 유아인이 군 입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중은 서울경찰청 홍보단에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유아인에게 연예인이라는 잣대를 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경찰청 홍보단 지원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마치 유아인이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홍보단에 지원한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장기를 살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아인의 생각은 개의치 않고 비난이 앞섰다. 결국 유아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최종 면접 과정을 통해 스스로 포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신의 능력을 살려 카투사나 군의관, 시진병 등으로 지원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고 이야기한다. 똑같이 현역 병사로 군 입대를 하더라도 "연예인은 특혜를 받는다"는 편견으로 인해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군 입대 사실을 비공개로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실제 배우 유승호의 경우 극비리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유승호는 "그냥 조용히 입대하는 것이 저와 같이 입대하는 다른 장병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군 문제에 있어서 연예인과 일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히 차이 나는 현실에서 연예인은 떳떳하게 자신의 군 입대를 밝히고 대중은 그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스팸문자 시달리고…보이스피싱 타깃되고…

<1면에서 계속>

영업사원들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판매보다 교환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수십·수백 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하는 조직 분양이 유행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맞바꾸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것. 경찰이 이러한 개인 간 교환까지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유출된 정보의 경우 카드사나 통신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 불과해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인지 못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액은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또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팸 문자나 전화에 노출되는 빈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새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주변 부동산, 인테리어 업자 등이 이사도 가기 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파악할 정도다.

◆유출 따른 사기, 개인이 주의해야

이 같은 전방위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시민단체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19일 감사원 종합상담센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 유기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노명선 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이버 사기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이버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부동산은 건설사가 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피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델하우스 주차 지킴에 적힌 전화번호를 감추고, 방명록은 최대한 쓰지 않는 등 정보 자체가 새나가지 않게 신경 쓰고 투자 권유 문자 등에도 속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 이재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립탐정등 新직업 40여개 생긴다

전문인력 양성 민간시장 고용 창출

사립탐정, 금곤관리연계,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 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가 육성·지원하는 신직업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등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한 직업이고, 연구기획평가사·연구실 안전전문가·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등은 기존 직업을 세분화한 직업이다.

인공지능전문가·도시재생전문가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도입하고, 임신출산육아 전문가·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직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와 고려 사항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의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직업이다.

정부는 신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공모해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도 유도할 계획이다.

/송연순기자 m.kim@metroseoul.co.kr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 태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리산에서 어미 반달가슴곰 1마리가 모두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개체는 35마리로 늘었다. /환경부 제공

동양의 '선' 체험하는 외국인 18일 부산 동구의 세계선(禪)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동양대는 뭇의 유니버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선수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인 모방자살 상관관계 입증

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팀

유명인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을 가져온다는 통설을 국내 연구진이 통계적으로 처음 입증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18일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에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의 자살 내용을 보도한 신문·TV 기사량과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다혜기자 yd@

증거위조 관련자 보안법적용 안해

검찰 김씨-김과장 대질 검토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 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서로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민웅기자 mkim@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8일 재단 회의실에서 NOOM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보재단은 도심걷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사망의 주요 원인인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직장인 건강 증진 걷기 프로젝트를 계획한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각 기업당 10인씩 팀을 이루며 다음달부터 6월까지 총 10주간 진행된다.

'위험성평가' 1000호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된 후 '위험성평가 인정 제1000호 사업장'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000호 사업장의 주인공은 (주)아이에스오토로 이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회사 내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고용노동부 박준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서' 수여 행사를 개최했다.

이 회사는 1000호 인정 사업장의 영예와 인정 유효기간 3년간 산재보험료 약 1520만원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경보 발령

서울시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엄마야 고마워' 스미싱 주의 경보에 이어 두 번째다. "사는 행복&가금 연 3.69%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당일 대출 승인 났는데 연락이 안되시네요. 빨리 연락주세요. 6~8%대로 이용 가능! 당일 가능!" 같은 문구로 서민을 유혹하는 대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하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챙기고 잠적한다"며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기자

강병규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안행부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강 후보자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했다.

/조현정기자

자동차유통 메카 장안평 살린다

무역센터·호텔 등 건립 추진

서울 장안평 일대가 자동차 무역센터와 비즈니스호텔 등을 갖춘 자동차 유통 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18일 성동·동대문구 장안평 일대 48만㎡를 인근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재생시키는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중고차 매매업소와 부품 전문상가가 집단 이전돼 국내 자동차 유통 산업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시설이 낡고 수도권에 대규모 매매단지도 들어서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시는 중고차 매매 시장과 부품상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산업의 기능을 강화해 장안평 일대를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키우는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즉 매매센터·경매장·물류센터 등으로 자동차유통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무역센터·박물관·비즈니스호텔·회의장·커뮤니티센터 등을 세운다는 복안이다. 또 장안평의 자동차 유통 산업을 인근의 중랑물재생센터와 서울지사용플라자와 연계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리사이클 중심지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무시설'로 묶여있는 현재 중고차매매센터의 용도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자동차유통산업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장안평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자의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 /김연주기자 m kim@

남한산성 순환 6차로로 확장

위례신도시 완공 맞춰 2018년 개통… '병목현상' 해소될 듯

'병목현상' 등 만성적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아온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오는 2018년 2월 확장 개통되면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2017년 12월 완공될 이정안 위례신도시 주변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총 사업비 3200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순환도로 수정구 단대동(닭죽촌)~중원구 갈현동(갈현IC) 6.9㎞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1280억원(LH 920억원 부담)을 들여 1단계로 확장하는 단대동~중원구 금광동(황송터널) 3㎞ 구간은 20일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비 192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금광동(황송터널)~갈현동(갈현IC) 4.9㎞ 확장 구간은 LH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치는 대로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위례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인 만큼 신도시 조성 사업자인 LH와 사업비 협의를 잘 마무리해 2018년 2월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을 추진했으나 행정절차와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다.

서울 송파구·성남시·하남시 677만6000여㎡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는 2017년 12월 완공되며 주택 4만3000여 가구(계획 인구 10만8000명)가 들어선다. /신종원기자 kahn@metroseoul.co.kr

황사와 마스크 관광 18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된 올해 첫 황사가 나타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명동을 지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관광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주민제안사업 공동체 공모

서울시 금천구는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 참여 공동체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0명 이상의 주민(조직)으로 구성된 동네 상가 등의 공동체다. 지원 분야는 녹화재료 지원, 시설 활동비 보조금 지원 등 2개 분야다.

강남구 봄맞이 환경정비 나서

서울시 강남구가 봄맞이 환경 정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3월 한 달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등 기능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모집

서울시 용산구가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할 경우 인근 민간 건물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 내 공용 기기와 각종 지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 실천 체험교실 운영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립 거마도서관은 오는 20일 '실천하는 재활용 에코리어프 세탁비누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이날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진행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한다.

남양유업 회장 "재산은닉 안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74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에서도 보듯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준기자

박대통령 "원자력 방호법 개정못해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가진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테러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라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실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국내 법안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0일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크림 독립 서방-러시아 정면대립

푸틴 절차 밟자 美·EU 등 제재 나서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민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자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강도 높은 2차 제재를 단행했다.

이날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인 13명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 인사, 크림 공화국 정치인 등이 제재 대상으로 러시아의 고위 정부 관리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인사를 포함한 11명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는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 전 총리와 드미트리 로고진 부총리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불법 주민 투표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권을 위반하는 러시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EU의 제재에도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귀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 패트릭의 날 기념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민들이 성 패트릭의 날 기념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다. 성 패트릭의 날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자 영국과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한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아일랜드 국경일로 아일랜드의 상징인 세 잎 클로버와 같은 녹색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AP 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주권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향후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위해선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승인,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크림공화국도 의회도 중앙은행 신설을 결의하는 등 독립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공화국 내 우크라이나 정부 재산을 공화국 소유로 전환하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제2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공화국 투표 결과와 독립선언을 '웃음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대비해 4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33년 술마신 남성 하마목으로

metro HongKong

음주가 간에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33년간 술을 마셔온 남성의 목이 '하마목'으로 변해버렸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자오징환(51·사진). 그는 현재 우한대학병원 구강내과에 입원 중이다.

자오징환은 18세 때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술을 권해서 처음 술을 먹어봤다고 말했다. 당시 술을 마시자 몸이 따뜻해지는 것 말고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술 마시는 버릇이 생겼고 매일 마시게 됐다.

"술을 지겨워 마셨어요. 안주도 필요 없어요. 매일 바이주(白酒)를 1kg 정도씩 마셨고, 60도가 넘는 바이주를 즐겨 마십니다. 도수가 높을수록 마실 때 좋아 나죠."

그는 많이 마실 때는 하루에 바이주를 3kg까지도 마셨다고 밝혔다. 9년 전 그는 목에 혹가 자란 것을 발견했지만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이 점점 비대해졌고 목이 얼굴만큼 두꺼워졌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술을 끊으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며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얼마 전 우한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자오징환이 오랜 기간 술을 마셔서 신체 기능과 간 기능이 약해져 있고, 갑상선에도 종양이 있어 수술은 쉽지 않았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오징환은 "이미 열흘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는 "오늘도 술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리=조선미기자

폭력없는 여성법 개정안 통과

metro Mexico

Embarazo: Prohíben pedir certificados para trabajar

멕시코에서는 여자 취업 준비생, 그리고 승진 대상에 오른 여성 직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증명서'가 있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그것이다. 온전히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홀몸이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이 같은 비이성적인 기업 관행에 멕시코시티 의회가 철퇴를 내렸다. 여성의 선천적인 능력이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멕시코시티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폭력 없는 여성법' 개정안을 393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한 여성이 원하는 도중 결혼 및 임신하는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유엔개발계획기구(UNDP)가 지난해 발표한 '성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멕시코는 61위로 중동의 쿠웨이트보다 낮다. 한국은 12위를 차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138억년 전 빅뱅 비밀 풀릴까

美 연구팀, 대 폭발 후 우주생성 과정 입증

약 138억 년 전 대폭발(빅뱅)의 비밀이 풀릴 전망이다. 우주가 생긴 과정인 '우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사상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대폭발 직후 우주가 빛보다 더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금과 같이 평탄하고 균일한 우주가 형성됐다는 '인플레이션(급팽창)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남극에 설치된 일종의 망원경인 '바이셉2(BICEP2)'라는 관측 장비를 이용,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상태를 분석해 얻었다. 우주 배경 복사란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있는 초단파 영역의 전자기파로 대폭발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특히 연구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초기 우주 급팽창의 흔적인 '중력파'의 패턴을 발견했다. 중력에 따른 파동인 중력파는 시공간에 뒤틀림을 일으키는데 이런 뒤틀림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에 특별한 패턴이 생기는 것을 탐지한 것.

연구팀의 존 코박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 부교수는 "이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오늘날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지점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2억원짜리 경찰순찰차 공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경찰국(LAPD)이 2억원짜리 스포츠카를 순찰차로 장만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경은 LAPD 순찰차와 똑같이 검정 바탕에 양쪽 문짝만 흰색으로 칠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순찰차(사진)를 공개했다.

람보르기니 '순찰차'에는 다른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지키고 봉사한다'는 시경 구호도 새겨져 있다. 이 '스포츠카 순찰차'는 시속 3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구성된 공중 순찰대 소속이다.

람보르기니 순찰차는 로스앤젤레스 통신회사 라이브소스1을 소유한 부부가 기증했다. 실제 순찰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고 시경 홍보 행사 등에 동원될 예정이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포츠카의 기본 가격은 18만2000달러(약 2억원)다. /조선미기자

/픽스뉴스

한국-파나마 화물선 충돌 침몰

18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앞바다에서 한국과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충돌, 파나마 화물선이 침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파나마 화물선에는 중국인 약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12명이 구조됐다.

한국 화물선 '게기서스브라이트'(7406t)은 한국에서 도쿄항으로, 파나마 화물선 '비글3'(1만2640t)은 요코하마항을 출발해 고베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한국 화물선에는 한국인 6명 등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당일>

코스피	코스닥
1,940.21 (+12.58)	541.16 (+5.33)
금리	**환율**
2.84 (-0.01)	1070.70 (+3.40)

미혼 38% "SNS로 옛 연인 사생활 엿봤다"

대다수의 미혼 남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옛 연인의 사생활을 검색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30대 미혼 남녀 8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인 96.4%가 SNS로 타인의 정보를 몰래 확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SNS로 정보를 가장 많이 찾아 본 대상은 헤어진 연인이 38%로 단연 가장 많았다. 이어 호감 가는 이성(26.1%), 애인의 지인(17.7%), 친구(13.4%) 순이었다. SNS로 특정인의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3분으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자의 63%는 "자신과 타인의 소식이 SNS에서 자유롭게 노출돼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게시물에 대한 무반응 우려,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이 SNS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김승호기자

뉴스&뉴스

새봄 살림 장만하러 오세요

18일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고객들이 리빙페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결혼과 이사가 늘어나는 봄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리빙페어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1~9분위 가구 소득세액 감소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최고 소득 계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 가구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김성태 협수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득 분위별로 분석했을 때 최고 소득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소득세액은 2011년 기준 473만3200원(실효세율 4.63%)에서 2014년 기준 516만5400원(실효세율 5.05%)으로 늘어난 반면, 1~9분위는 소득세액과 실효세율이 모두 줄었다. /유주영기자

노인 1인당 월진료비 26만원

●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일반 국민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인구 4999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8조5659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6만2159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 진료비 8만5214원의 3배 이상 높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는 한 세대당 연평균 105만2040원, 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승희기자

통신업계 '사물인터넷' 물밑 경쟁

국내 기업들 포럼 열고 관련 솔루션 공개…'대세' 선점 나서

통신업계에서 '사물인터넷(IoT)'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 사이를 연결해 소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2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사물인터넷을 정보통신 업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사물인터넷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통신 3사의 사물인터넷 가입자는 2011년부터 매년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사물인터넷의 글로벌 자원 논의와 협력을 위한 '국제 IoT 포럼'을 개최했다. 당초 이 행사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높은 관심 속에 퀄컴, 시스코, ARM 등의 해외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으로 열리게 됐다.

KT는 사물통신을 활용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 솔루션을 선보였다. 사물 간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기술은 전국 KT 건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타 사업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중소기업의 신경쟁력으로도 떠올랐다.

LG유플러스의 'LTE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최근 사물인터넷 분야 이용 건수 누적 4000건을 넘어섰다. 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솔루션아이티-에스앤브이는 LTE망을 이용해 재고 파악은 물론 오류 확인, 상품 매출 증대까지 꾀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판기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을 개발·운영하는 이큐브랩의 권순범 대표는 "무선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번거로운 선 없이도 기계를 작동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면서 "사물인터넷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통이 쓰레기 부피를 인식해 태양광으로 자동 압축하는 제품을 개발한 그는 지난여름 해외 최대 통신기업 보다폰과 손잡았다. 사물인터넷 기술이 없었다면 태양광 쓰레기통은 청년 벤처의 아이디어로만 남았을지 모른다.

권 대표는 "보다폰에서 중소기업용 맞춤 요금제를 신설한 점이 도움이 됐다"면서 "사물인터넷 성장을 위해 기업 유형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 마련 및 보안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지기자 umkus@metroseoul.co.kr

기관이 이끈 코스피 1940 회복 18일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0.66%) 오른 1940.21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069.2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자동차·시계·생수 지난해 수입 증가

지난해 자동차, 시계, 생수 등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커피와 귀금속 등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이 집계한 '2013년 10대 소비재 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차 수입액은 54억8500만 달러로 전년(44억9800만 달러)보다 21.9% 증가했다.

시계도 이 기간 2억5400만 달러에서 2억8400만 달러로 12.6%, 생수는 9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175.4% 각각 늘어났다. 시계의 수입 증가는 패션과 예물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5억200만 달러로, 전년(5억9700만 달러)보다 15.9% 줄었다. 귀금속도 이 기간 21억3700만 달러에서 19억7800만 달러로 수입액이 7.5% 줄었다.

커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 수입이 줄었지만 소비자들의 고급 커피 선호 경향으로 원두 수입은 전년보다 6.1%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생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스마트폰으로 적금 가입 해볼까

2030 세대 겨냥한 상품 다양

내 손안의 은행 '스마트폰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체와 송금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은 4913만 명으로 1년 새 1264만 명(34.6%)이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즉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이 3719만 명으로 1년간 1332만 명(55.2%) 급증했다.

주요 고객은 단연 2030세대. 시중은행들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재미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KB 스마트 폰 예적금' 상품을 지난 201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조원을 유지했다. 이 상품은 계좌 현황을 농장으로 이미지화했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동물 캐릭터 수가 늘어나고, 우대 이율이 연 0.1%포인트 늘 때마다 나무 수가 늘어나는 등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신한S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한 북21 지식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적금에 가입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식서재'에서 인문, 경제, 라이프, 어학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식서재에 5일간 출석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5회 이상 콘텐츠를 공유하면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리은행의 '우리 꿈 적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거나 친구와 함께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우리꿈적금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아 가입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이용하면 적금 목표 성취율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0851~3
부산광고문의	(051) 558-2100
독자센터	(02)721-9785
2005년 5월 24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6

이은결의 블록버스터 매직! 더 일루션

THE ILLUSION

LEE EUN GYEOL

조기예매 20%할인
3월 21일까지

VIP PACKAGE

VIP패키지석을 위한 특별 혜택!

공연후, 이은결과 사진촬영 및 기념선물 증정!

FAMILY PACKAGE

3,4인 가족권 30% 할인

VIP, R석에 한함. 증빙자료 지참

2014. 3. 28 (금) ▸ 3. 30 (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공연시간 | 금 3시 30분, 8시 / 토 3시, 7시 30분 / 일 2시, 6시 30분 예매 문의 | 1577-3363 제작 | 이은결 LEE EUN GYEOL

"동양증권 옛 명성 찾을 것"

서명석 대표, 유안타 피인수로 재무 건전성 기대

서명석(사진) 동양증권 대표이사는 "대만 유안타증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만나 동양증권의 DNA를 되살리고 과거의 모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안타증권과의 인수계약 체결로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대주주가 들어오게 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심각하게 훼손된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리테일 투자은행(IB) 채권 영업에 강했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해 관계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동양그룹의 소중한 고객들이 그룹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며 "동양 임직원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아픔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측은 오는 6월 만기가 돌아오는 1500억원 규모의 사채 상환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 대표는 "금융기관으로서 존립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금융위가 변경 승인을 하면 유안타증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동양증권의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정기자

'주총 몰빵데이' 사라지나

올해도 소액주주 편의 아랑곳 662사 동시에
내년 '섀도보팅' 폐지 전 전자투표제 도입 기대

최근 소액주주 보호 요구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면서 상장사의 주주총회 풍경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올해도 상장사들은 한날한시에 대거 주총을 개최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등 12월 결산 상장사 116곳이 지난 14일에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했고 오는 21일에도 무려 662개 상장사의 주총이 몰려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총의 집중이 주주들의 참여를 어렵게 해 기업 주도의 의안 통과를 수월하게 한다고 봤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금융당국의 행정 편의주의도 이를 부추긴다"며 "사업보고서를 주총 승인 이후에 제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 주총은 보통 두 달에 걸쳐 나뉘어 열린다"며 "우리나라와 달리 사업보고서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총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가 주총 전에 발표되면 주주들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총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소액주주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구소는 "외국에서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 소송이 잦은 데 반해 국내에서는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개인이 없다"며 "장기 투자를 유도해 개인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자투표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자투표제는 기업들의 집단 거부로 외면받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10년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제를 신청한 일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이콘텐트리, 선박투자회사 6곳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 씨케이에이치 1곳 정도만 이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섀도 보팅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전자투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섀도 보팅은 미참석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안 결의와 정족 수를 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 중심으로 주총 상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악용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섀도 보팅 폐지를 앞두고 기업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총도 서로 다른 날짜에 분산 개최해 주주들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hjlee@metroseoul.co.kr

작년 보험사기 무려 5190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원으로 2013년 4533억원 대비 14.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기관과의 업무 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사기 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1인당 적발 금액 또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액수는 2821억원으로 3.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은 25.2%, 장기손해보험은 40.1%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이 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및 사고 내용 조작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지 시스템 등 조사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 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보험업계, 해외부동산 2조8000억 투자

자산 운용 다변화 전략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생명보험 1조8738억원, 손해보험 9464억원 등 모두 2조8202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하게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회사는 현대해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해상은 영국 런던 지역 227억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438억원, 미국 시카고 지역에 406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을 투자했다. 삼성화재는 런던 시티권역에 252억원, LIG손보는 독일과 영국에 377억원을 투자했다.

생명보험사들 중에는 삼성생명이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핵심 상업지역인 차오양구에 부동산을 매입해 지상 57층 규모의 오피스빌딩을 건축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3월 영국 런던의 로프메이커플레이스 빌딩에 2600억원을, 교보생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갈릴레오 오피스 빌딩 등에 438억원을 투자 중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돼 마땅한 수익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훈기자 psh@

롯데마트 '생필품 반값 할인' 18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창립 16주년 통큰 초대전 을 홍보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창립 16주년(4월 1일)을 맞아 19일부터 4월 1일까지 4000여 상품, 2000억원 물량의 주요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 가산금리 일제히 상승

주요 은행들이 악화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0.63%포인트 인상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씨티은행의 가산금리는 평균 0.97%포인트로 1년 전보다 0.32%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도 0.19%포인트 상승한 1.20%포인트다. 다른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은 0.06%포인트, 우리은행은 0.03%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 위주로 이뤄졌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인 7~10등급의 가산금리 인상폭은 최고 2.32%포인트에 달했다. 신용도가 높아 고소득층이 주로 분포된 1~3등급의 가산금리 인상폭은 같은 기간 최고 0.51%포인트에 불과했다.

저신용층 가산금리를 2.32%포인트 인상한 수협은행은 고신용층 가산금리는 0.02%포인트만 올렸다. 신한은행도 고신용층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올리면서 저신용층 가산금리는 0.23%포인트 인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 조달의 만기와 저신용층의 부도 위험을 따져 가산금리를 책정했다"며 "주택대출은 담보가치 훼손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번호이동 10분의 1로… 일부 영업점 휴업

이통사 영업정지 탓 제조사 팬택 등 피해 현실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시장이 조용해졌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3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7600건, 14일 912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뜰폰(MVNO)을 제외하면 13일은 3621건, 14일은 4733건에 불과하다. 이는 영업정지 직전 10~12일에 일평균 6만4000건의 번호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통신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조사나 영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길을 가다 둘러보면 문을 닫은 영업점도 눈에 띌 정도다.

제조사 역시 이통사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베가 아이언2를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께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시장의 단말기 판매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팬택은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팬택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막상 자체적인 대안은커녕 시장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미래부 측에서 밝힌 이통사를 통한 지원 대책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안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현재 박창진 부사장이 직접 나서 방통위와 미래부 설득에 나섰다. 박 부사장은 지난 13일 방통위가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할 당시 전체회의 참관을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만나 설득한 데 이어 17일에도 미래부를 찾았다. 워크아웃에 영업정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역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이통사 영업정지는 결국 소상공인들 죽이기일 뿐"이라며 "어떤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두 길거리로 몰리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막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특히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사 영업정지 직전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며 영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나 영업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 역시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팬택 등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 조달 계획은 협의 중이다"면서도 "직원 대리점에 대한 지원 계획은 마련 중이지만 판매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우리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2월 車 수출액 61억달러

전년비 6.2% 늘어

2월 자동차 수출액이 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산업 수출 1위 자리를 지켰다.

완성차 수출액은 조업 일수 증가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등으로 9.2% 증가한 40억2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은 국내 업체 해외 생산공장 및 글로벌 업체로의 부품 공급 확대 등으로 0.9% 증가한 20.8%를 기록했다.

2월 수출은 국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 신흥시장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GM의 서유럽 쉐보레 브랜드 철수 및 미국의 엄격한 ~화 축소 시행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4만8721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 기아, 쌍용자가 증가한 반면 한국GM, 르노삼성은 감소했다. 현대자와 기아자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인지도 향상과 조업 일수 증가(2일)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2.7%, 33.3% 각각 증가했으며 쌍용은 뉴 코란도 C의 러시아 중국 판매 물량 증가로 24.4%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GM은 전략 모델인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등이 부진하면서 23.9% 감소했고, 르노삼성은 작년 말 선적 물량 확대에 따른 올해 초반 수은 축소로 61.3%나 줄어들었다.

2월 승용차 모델별 수출 순위는 아반떼(사진)가 2만4137대로 5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으며 엑센트(2만1677)가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프라이드, 트랙스, 쏘울, K3, 모닝, 투싼, 스포티지, 쏘렌토가 3~10위를 나타냈다.

2월 수출은 증가했으나 지역별로 전개된 1월 실적은 대부분 부진했다. 북미 수출은 영업일수 감소와 1월 일부 지역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6만7089대에 그쳐 우려감을 자아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서유럽 자동차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 공세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으로 16.3% 감소했으며, 동유럽 수출도 경기 부진 등으로 16.8% 감소했다.

아시아 지역은 SUV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서 쌍용이 767.3%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10.9% 감소한 1만1743대를 기록했다. /김태현기자 kimth66

스피카 "그린카 함께 타요" 그룹 스피카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 셰어링 서비스 브랜드 그린카 홍보대사 위촉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그린카 홍보대사로 선정된 스피카는 소유 대신 공유를 지향하는 그린카 서비스의 취지에 공감해 홍보대사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포스코 2만㎥급 LNG 저장탱크 개발

최근 성공한 고망간강에 카이스트 격자기술 결합

포스코가 철강 신수요 창출을 위해 LNG 저장탱크를 개발했다. 포스코는 18일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LNG 수요 증대에 대응한 대용량 저장탱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이 탱크를 오는 24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가스텍 2014에서 첫선을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LNG 저장탱크는 기존 최고 저장량 1000㎥보다 20배나 큰 2만㎥까지 늘어난 탱크다. 포스코는 최근 개발에 성공한 고망간강과 카이스트가 보유한 격자구조 기술의 결합을 통해 대형 LNG 저장탱크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최초 개발한 고망간강은 극저온에서 견디는 에너지강재로 영하162도로 보관되는 LNG에 적합하다. 특히 기존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보다 용접성이 우수해 탱크 제작이 쉽다.

이런 우수한 고망간강 경쟁력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적용한 기술이 바로 카이스트의 격자구조 기술이다. 저장탱크 안에 설치된 격자구조는 외벽에 전달되는 압력을 분산시켜 저장량이 늘어도 외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다. 격자형 압력용기로 불리는 이 탱크는 모양도 단순한 직육면체여서 대형 탱크 제작도 쉽다. 기존 탱크는 구형 또는 원통형이라 대형 제작이 어려웠다. 규모가 커지면 외벽이 두꺼워져 비용이 늘고 가공도 힘든 단점을 보완했다.

고망간강 격자형 압력용기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직육면체형이라 탱크 설치 공간이 줄어들고 제작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13000TEU급 컨테이너선에 1만5000㎥ 격자형 압력용기를 적용하면 900개 컨테이너를 추가 선적할 수 있다. 고망간강의 가격은 기존 재질인 스테인리스 3분의 2 수준으로 5000㎥ 탱크 제작 비용이 20억원 절감된다. /김형석기자 khs@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개소

국내 유망 인터넷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18일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스페이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인터넷 선도기업, 국내외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관련 협·단체 및 미디어 등 50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길찾기 앱 인기 여파 죽쑤는 차량용 내비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자동차 통신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운전자 1만3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는 지난 한 달간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21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비게이션 앱 사용률이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 평균 64% 대 36%였던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내비게이션 앱 사용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57% 대 43%로 그 차이가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운전자들의 내비게이션 앱 사용률은 51%에 달했다.

국내 내비게이션 앱 시장은 대형 이동통신사가 만든 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플래닛의 '티맵'이 58%로 가장 많았고, 올레 내비(27%), 김기사(15%), 유플러스 내비(11%)가 뒤를 이었다. 만족도도 티맵이 75%로 가장 높았다. 유플러스 내비(66%), 김기사(63%), 올레 내비(60%)는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국명기자 kmlee@

재창업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자원 접수중

실패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 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신규 과제를 20개 안팎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당 지원 금액 한도는 1억5000만원.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은 7년 이하다.

사업 실패 후 신기술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7년 이하 재창업 중소기업이면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www.smtech.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구글 "아이패드도 비켜 줄래?"

'넥서스9' 8.9인치로… 모바일OS 이어 태블릿도 애플과 정면 승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애플을 압도하고 있는 구글이 애플의 또 다른 자존심 '아이패드'의 목을 죄기 시작했다.

7인치대 레퍼런스(기준) 태블릿 PC '넥서스7'(사진)으로 재미를 본 구글이 8.9인치 화면을 장착한 '넥서스9'을 이르면 상반기에 공개한다.

9.7인치인 아이패드와 사이즈가 비슷한 제품으로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아이패드의 대항마로 비슷한 크기의 태블릿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아이패드의 존재감이 워낙 큰 데다 애플 따라 하기 와 같은 비난을 우려해 10인치에 근접하는 제품을 그동안 출시하지 않았다.

18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7인치 태블릿 2종을 선보인 구글이 화면 크기를 8.9인치로 늘린 새로운 넥서스 태블릿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6월에 개최되는 구글 개발자대회 '구글I/O 2014'에서 넥서스9가 등장하고 이르면 7월에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대화면 태블릿을 내기로 한 것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얻은 자신감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에서 안드로이드 OS 비중은 81%로 13%에 그친 애플 iOS보다 6배나 큰 장악력을 과시했다.

아이폰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사업도 늦게 시작한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이 사실상 시장을 평정한 것이다. 하지만 태블릿 시장, 특히 대화면 제품에서는 여전히 아이패드가 경쟁 우위를 지켜왔다.

무엇보다 돈이 될 만한 시장인 측면에서 구글은 자존심이 상했다.

IBM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크리스마스 시즌 온라인 쇼핑에서 iOS 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안드로이드의 4.6%보다 5배가량 컸다.

게다가 iOS 유저는 쇼핑 1건당 평균 93.94달러를 지출한 데 반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48.10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트래픽 역시 iOS가 32.6%, 안드로이드가 14.8%로 차이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여세를 몰아 태블릿 시장도 석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구글의 전통적인 파트너 삼성전자도 이와 관련한 행보를 곧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지구의 물, 함께 지켜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을 나흘 앞둔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동부대우전자 주최로 열린 '물, 미래를 위한 선물' 행사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지구가 그려진 풍선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총 상금 1000만원 도전! 와라컵 대회

모바일게임을 잘하면 재미는 기본이고 1000만원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편의점 경영 모바일게임 '와라편의점 for Kakao'가 총 상금 1000만원 규모의 '도전! 와라컵' 대회를 22일 자정까지 연다.

와라편의점은 지난 2월 25일 정식 출시해 3월 5일 구글플레이 인기 정상에 오른 뒤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급증해 2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순위에서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장르 중 유일하게 전체 톱 10 안에 랭크하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NHN엔터테인먼트는 총 상금 1000만원이 걸린 도전!와라컵 대회를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이벤트 기간 '매출 대회'에 여러 번 참가해 가장 높은 매출 점수가 본인의 기록이 된다.

전체 1위에게는 500만원, 2위에게는 150만원 등 50위까지 차등 지급되며 럭키왕(7777점), 도둑왕(이벤트 기간 내 친구 돕기를 가장 많이 한 유저)에게도 각각 10만원이 주어진다.

또 참가 신청자 선착순 1만명에게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박성훈기자

HP 인기 PC·노트북 할인·보상 판매

600G1 모델 10만원 저렴

PC 명가 HP가 데스크톱 PC와 노트북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HP 파워 세일'을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HP의 데스크톱 PC 라인업을 대표하는 "프로데스크(ProDesk) 600 G1'을 비롯해 이보다 한 체급 낮은 '프로데스크 400 G1'' 15인치 노트북 등을 할인 판매한다.

600 G1의 경우 84만9000원에서 10만원이 할인된 74만9000원에 장만할 수 있고 이외의 제품들도 5만원 상당의 할인가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 출시된 프로데스크 600 시리즈는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경제적인 가격의 최신 디자인을 적용한 기업용 제품이다.

전면 두께가 10cm에 불과한 슬림한 디자인 덕에 작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특히 HP IWC(Integrated Work Center) 스탠드를 활용해 제품을 '올인원 PC'처럼 쓸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는 PC 본체를 모니터 뒤편에 장착하는 것으로 공간 활용성에 크게 기여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케이블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일한 그래픽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HP 클라이언트 시큐리티'를 사전 장착한 점도 눈에 띈다.

기업은 보안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 비용과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HP e프린트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무선 프린팅을 할 수 있고 DTS 사운드를 통해 풍부하고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기본 디스플레이 외에 최대 4개의 추가 모니터를 결합할 수 있다.

600 G1은 4세대 인텔 코어 i3 프로세서를 장착했고 윈도7 프로 버전을 운영체제로 활용한다. 4GB 메모리에 500GB 저장 공간을 확보했다.

한편 HP는 이번 파워 세일에서 구형 PC를 반납하면 신형 제품을 최대 공짜로 주는 '나눔 보상' 행사를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830-08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훈기자

CJ E&M
Mnet
대한민국 뽕을 뽑다!
TROT X
Mnet 트로트엑스
3월 21일 (금) 밤11시
이번주 금요일 밤 11시 Mnet 첫방송

'삼각파도' 만난 재계 "곳간 채워라"

통상임금·정년연장·상속세법 개정 규제에 비용 줄이고 유보금 늘리기 '비상'

재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치권에서부터 불어온 재계에 대한 규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통상임금·정년 연장·상속세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성격이 강한 이슈들이 줄줄이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기업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재계는 비용 절약에 나서는 한편, 내부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과연 어떤 험한 규제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있다.

◆"통상임금, 산업 경쟁력 큰 타격"

올해 재계 앞에는 통상임금·정년 연장 등의 이슈들이 줄지어 서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단체협상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노사 간 이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조는 노사 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중인 통상임금 대표 소송에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해온 관행에 비추어 고정성을 인정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또 현대차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생산공정과 상시 업무 정규직화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올해 임단협 공동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통상임금과 관련,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해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보낸 바 있다.

그는 특히 "통상임금 판결 결과를 고려하면서 평화롭고 생산 차질 없이 임단협을 조화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꼽았다.

◆정년 연장, 중기 부담 커질 가능성

정년 연장 문제도 재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5월 모든 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재계는 중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으로 늘어날 인건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삼성을 필두로 대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나섰지만, 속내는 편치 않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대기업뿐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63.7%, 191개사) 중 63.4%가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6.7%포인트에 달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35.5%)'고 응답했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24.0%)이 우려하는 어려움으로 '노사 갈등 발생 우려'(44.4%)가 가장 높았고, '실질 임금 저하가 이뤄져 개편 실효성이 없을 것'(38.9%)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상속세 개정, 기업 영속성 저해

법무부가 올해 중으로 상속세 개정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후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을 부부가 혼인 기간에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할 경우 창업주 사망 시 한순간에 기업의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꼽혀왔다. 이런 와중에 나머지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이에 따른 기업 승계의 어려움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유럽위원회(EC)의 경우 가족 기업의 후계자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증여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권고한 바 있고,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바 있다.

/조태균기자 kgst@metroseoul.co.kr

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 추가 부담액 전망

기관	추가 부담액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체기업)	38조5천억원
한국노동연구원 (전체기업)	21조9천억원
중소기업중앙회 (중기)	11조6천억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사)	8조원

효성 '크레오라 워크숍'으로 고객 마케팅 강화

효성의 세계 1위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가 글로벌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고객 로열티 확보 및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효성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패션 트렌드 및 원단 개발을 제안하는 크레오라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효성이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개념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는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다.

효성은 이번 크레오라 워크숍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등 글로벌 브랜드와 베스트 퍼시픽 등 주요 고객사를 포함해 중국, 홍콩, 대만의 20여 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효성 크레오라는 이번 워크숍에서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수석 에디터이면서 패션 트렌드 칼럼니스트를 겸하고 있는 루이자 스미스를 초청해 2016년 S/S 시즌의 란제리, 수영복, 일반 의류·아웃도어에 활용 가능한 최신 텍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한다. 특히 크레오라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태균기자 ksgst@

효성의 세계 1위 스판덱스 브랜드인 크레오라가 지난 14일 중국 광동성 동관시의 한 고객사를 방문해 크레오라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 칼럼니스트인 루이자 스미스(왼쪽에 서 있는 사람)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2016년 S/S 시즌의 섬유 트렌드 및 원단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효성 제공

윤상직 장관 "기업 스킨십" 강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제이엔엘테크를 방문했다. 윤 장관이 참석자들과 함께 플라스마 코팅처리장비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모습. /산업부 제공

"환경규제 도입 공감하지만…"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입법 완급조절" 요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산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인사 10명과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전무 등 기업인 26여 명이 참석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사고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오염방지시설 기준이 되는 최상 가용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 법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정책 이행에 기업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 규제를 도입하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 경영 여건을 감안해 규제 입법에 완급 조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두탁기자 kim@

5명이 1100명으로…놀랍게 큰 몬스터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⑪ 티켓몬스터

"티모니언(티몬 직원을 지칭)들 중에는 때밀려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자신합니다. 연말 장기자랑 등 행사도 지원자가 넘쳐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해야 하죠. 직원들 사이에서 '내 몸에 주황색(티몬 상징색) 피가 흐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의 이승민 인사기획실장은 사내 문화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4년 전 5명으로 시작해 현재 1100명이 넘는 수준으로 회사가 성장한 배경에는 이렇듯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사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벤처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톡톡 튀는 인사·복지제도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선 티몬의 채용 절차 중에는 '서드아이'라는 독특한 방식이 눈길을 끈다. 직책·직급에 상관없이 티몬의 기업 문화에 가장 부합하는 티모니언 14명으로 구성된 서드아이는 대표가 합격시킨 사람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서류, 1차·2차 면접을 통과한 구직자들은 2~3명의 서드아이에게 1시간여의 면접을 통해 스스로를 '주황색 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스펙이나 능력이 뛰어난 구직자보다는 티몬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점심 시간을 활용하는 '런치앤런(Lunch&Learn)'도 티몬만의 자랑거리다. 남다른 재능이나 취미를 지닌 티모니언이 직접 강사로 나서 동료들을 상대로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4월 도입 당시에는 강사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커피 제대로 즐기기, 애견 돌봄이기, 가족끼리 바쁜 도 재미 등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강의가 큰 인기를 끌면서 강사 지원은 물론 수강 신청도 넘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몬 직원들이 지난 6월 열린 '해피아워'에서 치킨을 즐기고 있다.

티모니언 면접단 '서드아이' 점심시간 강의기부 '런치앤런'
자발적 기업 문화로 흑자 일구며 소셜커머스 괴물 성장중

우수 사원 포상 방식도 독특하다. 분기와 연말 각 부서에서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은 물론 기업 문화에 기여한 직원도 선발하는 '몬스터어워즈'를 연다. 단순히 트로피와 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내 카페 '명예의 전당'에 사진과 함께 공개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2개월에 한 번씩 맥주를 다뤄 프로그램에 둔 재미난 이벤트로 진행하는 '해피아워', 3개월에 한 번씩 유명 인사를 초빙하는 '인사이트 특강' 등도 티몬만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내 방송 '티몬TV'도 눈길

티몬의 소통 문화도 남다르다. 벤처업계에서는 드물게 사내 방송인 '티몬TV'를 만들어 회사와 관련된 이슈는 물론 각종 행사, 직원들의 경조사 등을 직접 전달한다. 특히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대표의 연설에도 기발한 퍼포먼스를 가미해 케이블 방송보다 재미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한 팀(One Team)'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매 분기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 매월 경영진과의 편안한 대화의 시간인 '톡톡 위드 시이오(Talk Talk with CEO)'와 '톡톡 위드 리더(Talk Talk with Leader)'도 티몬의 끈끈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흑자로 돌아선 티몬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노력 중이다. 연봉은 이미 중견기업 수준에 도달했고 매년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권, 고급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티몬 적립금 등도 지급해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세 확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매달 공채(tmon.saramin.co.kr)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200명 이상의 티모니언을 뽑을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사를 원한다

앵무새 답안 안 통해요

"티몬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회사를 꿈꾸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인재라면 누구나 티몬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승민 인사기획실장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인재보다는 티몬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기업가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평균 연령이 낮아서인지 사내 분위기가 밝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로 늘렸다. 덕분에 평균 연령 30세 이하인 직원들이 티몬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사내 행사·문화를 기획하는 '기업문화실'과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실'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들도 직원들이 즐겁고 인정적인 삶을 살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어떤가

▶▶벤처기업이다 보니 업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고 점심 시간도 북적이는 시간을 피해 오후 1시로 옮겼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 즐거운 기업 문화를 만든다고 판단한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면접 준비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앵무새처럼 모범 답안을 말해 합격하더라도 티몬의 자발적인 문화를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티모니언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국명기자

티몬 상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승민 인사기획실장.

복식발성·자신감·재치…연단 오를 준비 끝

장윤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⑮

훌륭한 연사가 되려면 태도에 신경 써야 한다.

매주 스피치 트레이닝을 취재하면서 스피치 성공은 발표자 태도가 좌우한다는 점을 느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경구처럼 말보다 모습이 먼저 보인다.

인사는 절도 있고 자신 있게 해야 한다. 속으로는 떨려도 티를 내면 안 된다. 씩씩하고 힘 있게 인사하면 청중은 발표자가 대단하고 많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받아들인다. 예의를 갖추되 발표 내내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발표를 시작하면 목소리에 신경 써야 한다. 좋은 목소리는 호감을 준다. 복식발성으로 자신의 성대에 맞는 목소리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흔히 남성은 원래 성대보다 낮은 위치에서, 여성은 높은 위치에서 발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으로 원하는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장시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성대에 긴장을 줘 목을 상하게 한다.

물론 김제동이나 강호동은 목소리가 안 좋아도 인기 진행자다. 재치 있는 말솜씨가 단점을 가린 경우다. 오히려 이들은 예능인이란 직업상 쉰한 사투리와 쉰 목소리가 개성으로 작용했다. 일반 직장인들이 따라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다. 정석대로 가야 한다.

보디랭귀지는 효과적인 제2의 언어다. 말하는 동안에는 자료만 보지 말고 소통을 위해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맞춰야 한다. 숫자를 표현할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면 좋다. '첫 번째 사항은~'이란 내용을 전할 때는 검지 손가락을 펼치는 식이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주먹을 쥐어 표현한다.

발표는 내용과 형식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도의 작업이다.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 내용은 기본이다. 무서운 점은 청중은 발표자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다. 스피치 트레이닝 연재를 하며 많은 문의를 받았다. 그만큼 말하기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이 뜨겁다. 스피치 트레이닝 연재가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원한다.

/jang@ㅇㅇㅇ

서류전형·자소서·면접 단계
전공·지원동기·성실성 본다

올 상반기 공채에 합격하려면 전형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상반기 신입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평가 기준'을 살펴본 결과,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항목으로 '전공'(50.6%·복수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인턴 등 실무경력'(40.7%), '나이'(29.6%), '자격증'(29%), '거주지역'(29%), '학력'(27.8%)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지원동기'(34%·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성격 및 장단점'(32.7%), '생활 신조, 가치관'(31.5%), '입사 후 포부'(30.9%), '목표 달성(성과) 경험'(27.2%), '실패 및 위기 극복 경험'(20.4%) 등의 순이었다.

면접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으로는 '성실성'(42% 복수 응답)이 1위에 올랐다. '직무 지식·능력 보유'(40.7%), '적극성'(38.3%), '지원 동기'(37.7%), '입사 후 포부, 직무 비전'(34%), '자기소개 PR'(29%), '가치관, 성향'(26.5%), '커뮤니케이션 능력'(21.6%) 등을 본다는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소재 약한 아기옷 손빨래를

봄맞이 유아용품 정리법
나들이전 유모차 꼭 세탁
잔류 세제 여부 확인해야

두꺼운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나들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유아용품 정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이 옷은 어른의 것보다 소재가 약하므로 잘못된 세탁법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니트나 외투류는 되도록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보관할 때는 세탁이 불가피하므로 최대한 옷감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세탁을 한다.

가루세제를 사용할 경우 세제 찌꺼기가 남아 아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아 전용 액체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미지근한 물에 유아 전용 세제를 적당량 풀어 충분히 녹인 후 옷 전체를 담가 손세탁해 충분히 헹궈낸다.

세탁을 마친 후에는 그늘에 넓게 펴서 널어주고 보관 시에는 옷 사이사이 습자지나 신문을 넣어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기 띠도 꼼꼼히 살펴야

또 봄나들이에 필요한 아기 띠나 유모차는 사용하지 않는 동안 오염된 곳은 없는지 잘 살펴 깨끗하게 세탁하고 관리해 준다. 아기 띠의 경우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면 버클이나 띠 부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전용 빨랫비누로 손세탁하고 가급적 탈수기 사용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유모차도 보관 중 오염됐을 수 있고 세균 번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탁해야 한다. 시트 부분은 따로 분리해 세탁하고 오염되기 쉬운 핸들과 프레임 부분은 제균 티슈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보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황상근 미이비 브랜드 매니저는 "아이들의 피부는 어른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유아용품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유아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옷자림이 기비유지는 날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잔류 세제가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오가게·아웃도어스도 뭉쳐 '메가 하프클럽'

온라인 패션 유통 전문기업 트라이씨클은 운영 중인 온라인 몰 하프클럽을 중심으로 패밀리 사이트인 오가게, 아웃도어스가 함께 뭉쳐 '메가 하프클럽'을 새롭게 선보였다.

메가몰로 변신한 하프클럽은 스포츠·아웃도어, 트렌드 소호, 유아동 전문관을 운영해 국내 최대 상품을 구비했다. 또한 패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콘텐츠 커뮤니티 '스페이스 오'를 통해 실시간 패션 정보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큐레이션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롯데월드 50% 할인권 증정, 금액별 명품 사은품을 주는 구매왕 이벤트 등이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하프클럽 홈페이지(www.halfclub.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학철기자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홍명보재단 공식후원 계약

동아오츠카는 최근 홍명보장학재단과 포카리스웨트 공식 후원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인식에는 이원희(사진 왼쪽)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홍명보 홍명보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양측은 지속 진행되는 홍명보장학재단의 공식 행사와 공동 사회공헌활동(CSR)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동아오츠카는 향후 2년 동안 홍명보장학재단의 각종 공식 행사에 음료와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미국·일본서 맛본 그 커피

스타벅스 리저브 커피·클로버 추출기 국내 5개 매장 첫선

스타벅스 코리아는 싱글 오리진 프리미엄 커피를 제공하는 스타벅스 리저브와 리저브 커피 추출기 클로버를 18일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압구정로데오역점에서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와 백수정 마케팅 담당 상무, 크리스 김블 스타벅스 리저브 담당 브랜드 매니저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출시 행사를 벌였다.

스타벅스 리저브 커피와 클로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만 제공되는 차별화된 스타벅스의 전략으로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해 국내 5개 매장에 도입됐다. 올해 부산에 1개, 서초구 일대에 1개를 추가로 오픈해 7개 매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장은 스타벅스 소공동점, 적선점, 압구정로데오역점, 이대R거리점, 광장점 등이며 이 매장에서는 전원 커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커피 마스터를 이수한 바리스타들만 근무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는 판카 누에보 멕시코와 썬 드라이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등 두 종류를 먼저 선보였다. 판카 누에보 멕시코는 중요한 생물학적·생태학적 보존지 중 하나인 엘트리운포 내 커피 농장에서 1964년부터 재배되고 있는 커피다. 썬 드라이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손으로 직접 수확한 커피 열매를 햇볕에 말리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아프리카 야생의 풍부한 맛이 특징이다.

한편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는 커피 주문과 동시에 1잔 분량의 원두를 계량하고 전용 그라인더에 갈아서 클로버 머신을 통해 커피액을 추출한다. 클로버 머신은 진공압착 기술이 적용된 유일한 커피 기기로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 커피를 위로 밀어내서 추출한다.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는 "리저브와 클로버 도입으로 한층 높아진 커피 애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스타벅스 커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국내 커피 시장의 발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측 자료를 봐도 전반적인 시장은 한 자리 수 정도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며 "소득 수준이 오르고 가치 소비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전문점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주문 즉시 그라인딩하는 리저브 커피 18일 스타벅스 압구정로데오역점에서 스타벅스 리저브 담당 글로벌 브랜드 매니저인 크리스 김블(Chris Gimbl)이 매장을 방문한 여성 고객들에게 리저브 커피 추출을 시연하며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봄처녀 얼굴마다 핑크빛 물결

메이크업 컬러 트렌드
사랑스러운 연출 요령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올봄 메이크업 트렌드 컬러는 역시 핑크다. 뷰티 브랜드들도 저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른 각자의 시그니처 핑크 컬러로 다양한 봄 컬렉션과 메이크업 룩을 선보이고 있다.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하고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준다. 여기에 딸기우유 색과 비슷한 핑크 톤 블러셔를 사용해 뺨을 물들이면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진다. 또 딸기우윳빛 핑크 컬러가 어울리지 않는 여성이더라도 피치나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적절히 핑크 컬러 제품과 조합해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붉은 기가 있는 핑크 컬러는 청순하면서도 생생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하얀 여성이라면 붉은 톤의 핑크가 좀 더 생기 있는 얼굴로 만들어주며 하얀 피부를 더 돋보이게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 외에도 세련된 느낌을 살린 핑크 컬러도 있다. 코랄 빛이 도는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사용하면 따뜻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누드톤 핑크 컬러 립스틱은 눈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거나 도 적절하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난치성 탈모 '모발 이식' 없이 치료 가능

탈모는 질환, "치료 없는 모발이식 재수술 불러와" 경계해야

모델동안 교제하은 여자친구와 올봄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강기준(33-가명)씨는 탈모로 인해 지난해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모발이식 부위에는 새로 심은 이식모가 자라서 수술 전보다 상태가 괜찮아졌다. 하지만 탈모 치료 과정이 생략돼 이식 부위 외에 또 다른 곳에서 탈모가 진행되면서 강씨의 머리는 쥐 파먹은 듯한 모양이 됐다. 강씨는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다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조기 치료 힘쓰면 수술 없이 재생 가능

강씨와 같이 결혼을 앞두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정에 쫓겨 조급한 마음에 치료 과정을 생략한 채 모발이식 수술만이 대안인 양 수술부터 받는다.

그렇지만 모발이식 수술은 치료가 아닌 부족한 부위를 채워주는 보완의 한 방법일 뿐이다. 무작정 수술을 선호하고 치료 과정이 생략되면 재수술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게다가 탈모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지면서 탈모로 인한 자신감 결여, 대인기피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치료 방법을 선택해 탈모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탈모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완치를 위해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조기에 치료하면 이식 수술 없이도 재생이 가능하다. 즉 수술에 앞서 치료적인 개념으로 탈모에 접근하고 수술 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올바른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되며 단기간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탈모 유발의 요인으로 피해야 한다. 두피 청결을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아야 하며 과일이나 채소, 콩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탈모 예방을 위한 유익한 한 방법이다.

◆원내 모발연구소, 난치성 환자 치료 기여

오준규 모리치피부과 원장은 원내 모발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며 두피, 모낭, 모발의 생리학적 구조, 모발 주기 등과 난치성 탈모 질환을 연구해왔다. 특히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의 학술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난치성 탈모질환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환자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미 모발 줄기세포에서 분리한 모낭을 시험관에서 배양해 모낭의 모근초 주위로부터 세포들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모발을 하나씩 분리해 배지에서 배양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여러 물질들을 평가·배양함으로써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 선택 및 모발 성장 주기 변화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모리치피부과는 실험과 연구를 통해 탈모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첨단 기술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에는 보기 드문 난치성 탈모 치료 전문병원인 것이다.

오준규 모리치피부과 원장

또 서울대 의대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거쳐 동 대학 탈모 클리닉 전임교수를 거쳐 네이버 하이닥(naver hidoc) 탈모 상담 전문의 사로도 활동 중인 오 원장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탈모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수술에 앞서 의학적인 치료부터 권하는 의사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오 원장은 개원 후 13년 동안 3500 케이스 이상의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난치성 질환 치료 3300케이스 중 2500건 이상을 수술 없이 체계적인 치료만으로 완치시킨 바 있다.

오 원장은 "탈모로 고민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좀 더 빠른 탈모 탈출을 위해 수술을 선택한다. 하지만 탈모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근본적인 완치를 위해선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재용 기자

난치성 탈모 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12개월 뒤의 모습

프랑스 뱅쇼·이탈리아 꿀그라파…

나라별 감기 민간요법 눈길

환절기에 걸리는 감기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이상하게 오래간다. "그럼 어쩌지?" 라고 고민되는 순간 불현듯 머리를 치고 가는 한 가지, 바로 민간요법이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을 찾아봤다.

먼저 민간요법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춧가루를 넣은 매콤한 콩나물국과 생강차가 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들이라 다소 식상하지만 경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효과도 굳건하다. 또 가까운 중국에서는 해열과 발한 억제 작용을 하는 뽀뿌리차를, 가깝고도 먼 호주에서는 벌꿀을 넣은 뜨거운 레몬차를 마신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민간요법이 가득하다. 호흡기 감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미국의 치킨수프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달걀, 꿀, 우유, 버터의 환상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러시아의 고골모골은 그 맛이 먼저 궁금해질 정도다. 게다가 스페인에서는 마늘을 넣은 허브티를 마시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의 나라답게 와인과 과일을 끓여서 먹는단다.

감기인데 술을 먹고 싶다면 이탈리아의 민간요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라파에 꿀을 넣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민간요법이라고 하니 술 먹고 감기 잡고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세계 각국의 감기 민간요법들!
한국 / 미국 / 프랑스 / 스페인 / 러시아 / 중국 / 이탈리아 / 호주
/롯데마트 해피니 인포그래픽 제공

/정혜인 기자 hyun0404@metroseoul.co.kr

항산화 효소 먹고 면역력 높여볼까

씨스팜 '몸팔팔' 식약처 허가

미세먼지의 공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효소가 주목받고 있다. 항산화 효소가 체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산화 효소는 음식만으로 섭취가 충분치 않고 섭취한다 하더라도 위산에 의해 쉽게 파괴돼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항산화 효소를 섭취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산화 효소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씨스팜의 '몸팔팔-PME88' 발효 SOD를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은 위에서 분해되는 항산화 효소를 밀 단백으로 코팅해 위산에 사멸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도록 제조됐으며 체내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밸런스를 유지시켜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좋다. 또 항산화 효소인 SOD를 함유하고 있어 손상된 혈관을 개선시키고 경동맥의 두께를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도 한다. 이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황재용 기자

이대병원 어깨질환센터 25일 건강강좌

추첨 통해 초음파 무료검진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가 오는 25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어깨관절의 날'(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신상진(사진) 어깨질환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어깨 질환 전반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됐다.

또 병원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초음파 무료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어깨 운동기구, 어깨관절 질환 가이드북 등이 제공된다.

어깨 질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2)2650-5143

/김하늘 기자

새로 나온 책

경제

뉴 노멀

피터 힌센/흐름출판

더 이상 디지털이 새롭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 IT 분야의 미래학자인 저자는 디지털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뉴 노멀' 시대를 경제·경영학적으로 접근해 그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운다. 뉴 노멀 시대를 한계값으로 설명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경영

인재는 이렇게 뽑는다

한성/알과소

저자는 중국 역사와 고전 속 명용들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리더십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무궁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학에 접목시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종교

네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박종서/코리아닷컴

평탄한 노후가 보장돼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정한 박은서 장로의 이야기를 담았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필리핀 오지의 망얀족 마을에서 쌀농사꾼으로 살며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류로 신학하기

한국문화신학회/동연

한류미래전략연구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5조6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는 더 이상 일순간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적 기회 요소가 된 것이다. 이 책은 각각의 관점과 연구 방법으로 한류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전행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한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과 논의가 녹아 있다.

인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박병식 외/시간여행

학교폭력은 입장과 관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법'이 근거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법' 각 조항에 대해 변호사의 해설을 곁들여 학교 현장에서 가지기 쉬운 오해를 지적한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해를 돕는다.

행복 4.0

우문식/물푸레

조너선 헤이트 버지니아대 심리학 교수의 행복 가설 '행복 3.0'보다 한 걸음 나아간 '행복 4.0'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특히 '웰빙 이론'과 저자가 현에서 제시하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법을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을 위한 행복 처방전을 받아보자.

소설

정도전

정종일/안문사원

장편 역사소설 정도전(전 3권)은 소설보다 소설 같은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다. 이 소설에는 가상의 인물이나 사건은 거의 없다. 작가는 사실(史實) 속에 외곡됐거나 사료의 행간과 자간 속에 숨어있는 역사적 진실을 과감한 추리력과 상상력으로 복원시키며 역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특히 정도전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작업이 눈에 띄는 소설이다.

전자책 제작·번역 지원 신청하세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지원'과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은 일반 도서와 문광부·진흥원 등 기관 선정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상·하반기 총 1000종 지원 예정이며, 종당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또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15~20종을 선정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제작비를 차등지급한다.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사업은 언어권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총 25편을 언어·장르·난이도 등에 따라 번역비를 차등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비즈센터(www.ebookbiz.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그깟 가족? 삶의 응급실

'덕혜옹주' 이후 5년만에 권비영 작가 신작 소설

운명이라 여기고 버텨냈던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조국과 운명을 함께한 한 여인과 민족의 아픔을 동시에 그려낸 권비영 작가가 5년 만에 돌아왔다. 그것도 우리 도처에 있는 '은주'와 함께 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은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어여쁜 딸들이지만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한 모습 뒤로 언제나 폭력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부모로부터 극복하기 힘든 폭력을 당한 아픈 시연을 가슴으로만 끌어안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는 결국 가출을 결심하고 집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집을 나선 은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들과 함께 치유해나간다. 특히 남자친구인 터키 사람 에민과 그의 아버지 파샤는 부정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비밀과 다양한 상흔들, 풀리지 않던 비밀, 그리고 저마고 저렸던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도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위안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가족 안에서 받은 고통과 아픔을 가족 안에서의 소통과 용서를 통해 치유하는 모습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느끼게 된다. 나를 온전히 있게 한 가족의 품에서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더욱이 작가는 터키에서 온 에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서로 구분과 차별 없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배척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인 터.

결국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배우고, 알아가려는 은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는 셈이다. 내가 살아가려는 인생과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풀어보자.

은주

권비영/청조사

/유제성 기자 hsau0368@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작고 거리에 혼자 남는 상상을 한다. 삶의 무게와 소란한 마음 탓에 갑작스레 고요와 적막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그 누구의 마음도 닿지 않는 곳에 완전히 홀로 남겨지고 싶다. 비록 누군가에겐 쓸쓸하게 보일지라도 홀로 삶을 지고 가는 뒷모습은 아름답다. –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박후기/가쎄) 중–

/정혁교기자 Nuno1404@

인생은 노는 것…끝에서 끝을 보라…

화제의 책

그대 속눈썹에 걸린 세상

허허당/북클라우드

"과거는 없다. 나는 동한 행복하라."

"끝에서 끝을 보라. 무엇이든 끊어지면 새로워진다."

"인생은 노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슴 뛰게 노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가 놀기 위해 만들어진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노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열심히 놀라는 것. 다른 의미가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살라는 주문서 같은 책이 아니다. 글자의 나열과 여백으로 삶을 모롯이 느끼라고 한다. 세상 그리 바쁘지 않으니 쉬어가라고만 한다. 책을 전한 소년가 이외수의 말처럼 살에 가시가 박히듯 단생을 자아내는 책이다.

허허당 스님이 전작에서 세상 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번 신작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해준다. 짧은 글 속 긴 울림에서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중 수행 30년이 고스란히 녹아든 70여 점의 선화도 함께 실려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 책 한 권을 읽는 것 만한 힐링이 또 있을까.

삶의 정수를 오롯이 담은 1장 '인생은 노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과 조우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2장 '끝에서 끝을 보라',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3장 '쉬어가라 세상 그리 바쁘지 않다', 자연에서 얻은 깨우침을 전하는 4장 '아름다운 것들이 더욱더 아름답다'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행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안내하고 있다.

신중 수행 30년 긴 울림에 선화도 70점 곁들인 잠언서

/정혁교기자 kimo1404@

〈김희애 유아인〉

연기에 반하고 영상미에 취하고

월화극 '밀회' 순조로운 출발

JTBC 월화극 '밀회'가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곡과 빼어난 영상미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김희애(왼쪽 사진)와 유아인(오른쪽)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밀회'의 17일 첫 방송이 JTBC 역대 월화드라마 첫 방송 중 가장 높은 시청률 3.2%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배우들의 연기와 아름다운 영상미에 더해 드라마를 가득 채운 클래식 음악이 '밀회'만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 역을 맡은 유아인은 피아노 연주 장면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밀회' 음악 총괄을 맡은 김소형 피아니스트는 "유아인은 진짜 천재인 것 같다.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도 한 번만 알려주면 금방 어깨 따라와 항상 감탄스러웠다"며 "무척 어려운 곡을 줘도 그다음 날이면 바로 외워오는 걸 보고 순간 음악도와 잠중력을 가졌음에도 자만하지 않는 엄청난 노력파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선재 역은 유아인이 아니면 못 했을 것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안판석 PD는 "소리 녹음은 전문 피아니스트가 했지만 김희애와 유아인은 거의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촬영에 임했다. 손만 클로즈업되는 몇 장면에만 대역이 일부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밀회'에선 배우들의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등 클래식 거장들의 음악도 등장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밀회'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흔 살 커리어우먼 오혜원(김희애)과 스무 살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유아인)의 금지된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멜로뿐 아니라 우아하고 고상한 예술재단 이면에 숨겨진 돈과 권력에 얽힌 상류층 여성들의 암투를 안 PD만의 영상미와 연출력으로 담아낸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더 섹시해진 NS윤지

미니앨범 '야시시' 티저 공개

섹시 여가수 NS윤지(사진)가 다음달 1일 새 미니앨범 '야시시' 발매를 알리며 파격적인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컴백을 앞둔 NS윤지는 한층 더 섹시해진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18일 공개된 사진 속에서 순백의 원피스 수영복 차림으로 머리를 쓸어올린 채 양팔을 들고 서 있는 NS윤지는 환상적인 몸매로 감탄을 자아낸다.

NS윤지는 박재범이 피처링한 '이프 유 러브 미' 이후 약 1년 동안 새 앨범 준비에 몰두해왔다. '야시시'는 레트로한 펑크 리듬에 힙합이 가미된 곡으로 라틴풍의 사운드와 NS윤지 특유의 섹시한 보컬이 인상적이다.

특히 '야시시'는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여성 작곡가 세온(SEION)이 가요계 히트곡 제조기 이단옆차기 사단에 합류해 만들어낸 곡으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장병호 기자

'슈스케6' 지역예선 스타트

오디션 열풍을 이끈 엠넷 '슈퍼스타 K'의 여섯 번째 서막이 올랐다.

'슈퍼스타K 6'의 지역 예선이 오는 23일 울산을 시작으로 총 14개 도시에서 차례로 열린다.

울산은 서인국을 배출한 도시로 앞선 시즌 동안 예선이 열리지 않았으나 이번 시즌 순천·원주·분당·장원·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예선지에 포함됐다.

시애틀·토론토·댈러스·시카고 등 미주 7개 지역과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도 추가됐다.

지난해 '슈퍼스타K 5'의 결승전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제작진은 예선 지역 확대로 참신한 인재를 더욱 많이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작진은 "더 다양한 참가자들의 더 많은 기적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선 시즌에서 많은 실력파 가수를 배출한 지역들이라 큰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슈주-M '스윙'으로 亞 히트 노린다

중국서 21일 앨범 선보여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주니어-M(사진)이 새 미니앨범 '스윙'으로 컴백을 선언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시원·동해·려욱·규현·은혁·성민·헨리·조미로 구성된 슈퍼주니어-M이 오는 21일 중국의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세 번째 미니앨범 '스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윙'은 지난해 1월 발표한 2집 '브레이크 다운' 이후 1년2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이다. 슈퍼주니어-M은 지난해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중국 '바이두 케이디엔 시상식'의 음악 부문 최고상인 '2013 바이두 최고 그룹상'과 '1FPI 홍콩 음반 판매 대상'의 '한일 최다 판매 앨범상'까지 수상해 새 앨범은 기대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한편 슈퍼주니어-M은 본격 활동에 앞서 18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웨이보 등을 통해 멤버들의 새로운 변신을 담은 '스윙'의 첫 티저를 공개한다.

/장병호 기자 yoo@

성시경 소속사 등 5곳 흡수

CJ E&M 레이블 사업 나서

CJ E&M 음악사업부문이 본격적인 레이블 사업에 나서며 가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CJ E&M은 18일 "기획사들이 음악 산업의 본질인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유통·마케팅·글로벌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사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레이블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제 개편으로 로이킴·정준영이 소속된 CJ뮤직, 성시경(사진)·박효신·서인국·빅스가 소속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유성은이 소속된 뮤직웍스, 홍대광·손호영을 영입한 MMO, 하이니·와블이 소속된 1877 등 5개 기획사가 CJ E&M의 레이블이 됐다.

CJ E&M은 향후 힙합, 록, 인디 등 장르별로 레이블 사업을 확장해 올해 안에 6~8개의 레이블을 구축할 예정이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내수 시장이 취약한 한국 음악 산업은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무대로 경쟁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기획사들이 제작에 집중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기업에서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음악 산업 자체를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순호 기자 [illegible]@

힙합듀오 배치기 1년2개월만에 컴백

새 싱글 '뜨레요' 24일 발표

힙합 듀오 배치기(사진)가 1년2개월 만에 컴백한다.

24일 새 싱글 '뜨레요'를 발표하는 이들은 18일 소속사 트위터에 재기발랄한 기존 이미지와 다른 멋스러운 분위기의 사진을 공개해 변화를 예고했다. '뜨레요'는 에일리의 히트곡 '헤븐'을 공동 작곡한 이기와 용배, 그리고 신인 보컬 열리로 구성된 3인조 팀과 배치기가 공동으로 프로듀싱한 곡이다.

'뜨레요'는 전형적인 디스코 리듬에 귀에 쏙 들어오는 한국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배치기는 지난해 1월 정규 4집을 발표해 타이틀곡 '눈물샤워'로 큰 인기를 얻었다.

배치기는 음원 발표 후 27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컴백 무대를 연다. /유순호 기자

국내 최초 한일 동시 공연!
세종문화회관이 선택한 뮤지컬 <삼총사>

MUSICAL

삼총사

THE THREE MUSKETEERS

2014. 03. 14 GRAND OPEN

2014.3.14 ~ 3.3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웅장·반전·호연 '3색 매력' 느껴보세요

배우가 말하는 '쓰리데이즈'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출연진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18일 경기 고양시 SBS 일산 제작센터에서 열린 '쓰리데이즈'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경호관 한태경을 연기 중인 박유천은 "세세한 반전이 강점이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아닌 등장인물 각자의 기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뚜렷한 자기만의 이유와 목표 때문에 관계가 꼬여지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충분한 재미를 느낄 것이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대통령 이동휘 역을 맡은 손현주는 "여기 있는 7명의 배우 이외에 곳곳에 숨어있는 연기파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다"고 구성력 이외의 강점을 언급했다.

SBS '쓰리데이즈'의 박유천·손현주·장현성 /SBS 제공

현재 유력한 대통령 암살범으로 쫓기고 있는 황봉수 역의 장현성은 "가장 큰 강점은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소재다"며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수많은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선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르물이라는 특징답게 작품의 서사가 거대하고 인물마다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도 다르다. 쭉 주관이 달라 맞이하게 되는 비극성이 시청자의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들은 지난달 26일 제작발표회에서 작가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냈다.

손현주는 "물 샐 틈 없이 쓴 김은희 작가의 대본에 감탄이 나온다"고 했고 박유천도 "연기를 하면서 대본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극의 탄탄한 구성을 극찬했다. 방영 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김은희 작가가 화제의 검색어에 오르는 등 쿠리 장르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도 높은 상태다.

소이현(이차영)은 간담회에서 "회가 거듭될수록 한 포인트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기대해도 좋다"고 5화 방송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장현성도 "맛이 없는 음식을 억지로 권할 만큼 몰염치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재미를 선사하겠다"고 향후 전개에 자신감을 보였다.

'쓰리데이즈'는 지난주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닐슨코리아·TNms)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수목극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원종환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천송이 엄마' 나영희 이번엔 계모

일일극 '엄마의 정원' 출연

'천송이 엄마' 나영희(사진)가 계모로 변신했다.

나영희는 MBC 새 일일극 '엄마의 정원'에서 대성기업 사모님이자 주인공 서윤주(정유미)의 새엄마 유지선 역을 맡았다. 유지선은 27년 동안 애정 없이 딸을 키운 차가운 성격으로 전작 SBS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영희가 보여준 천송이의 순수 엄마와는 정반대 캐릭터다.

지난 17일 '엄마의 정원' 첫 회에서 나영희는 극중 남편 서봉진(박용우)에게 "당신 옛날 여자가 낳은 핏덩이 27년간 키웠으면 됐다"고 말하며 냉정한 새엄마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주인공의 생모 정순정 역은 '국민 엄마' 고두심이 맡아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 간의 연기대결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엄마의 정원'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따뜻한 엄마의 품에 모여서 서로 치유해주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정지은 기자 [illegible]

'안녕하세요' 고민 상담으로 재미 선사 '힐링캠프' 스타 진솔한 이야기로 감동

같은 듯 다른 두 토크쇼

같은 듯 다른 토크쇼가 월요일 밤 시청자를 치유한다.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왼쪽 사진)는 국민들의 고민 상담을 통해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고 SBS '힐링캠프'(오른쪽)는 스타의 진솔한 이야기로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안녕하세요'는 사연 조작설에 휘싸여 진정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신동엽·이영자·컬투의 정찬우와 김태균 등 네 진행자의 힐링이 관건인 토크쇼다. 신동엽의 19금 개그와 이영자·컬투의 티격태격 입담이 어우러져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스러운 외모 때문에 성적 모욕을 당한 남자, 빛이 퍼진 눈동자 때문에 따돌림이 두려운 어머니, 동남아시아인 같은 외모로 오해를 받아야 했던 남자 등 주로 색안경에서 비롯된 사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녕하세요'는 다름을 포용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대국민 힐링을 자처한다.

'힐링캠프'는 스타의 재발견이 가능한 토크 프로그램이다. 초반 종교·정치·스포츠 등 연예에 국한하지 않은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호평받았지만 점차 작품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방영된 배우 이보영(10일)과 그룹 소녀시대 편(17일)은 데뷔 전부터 스타가 된 이후의 삶까지를 조명해 그 안에 녹아있는 스타 자신만의 인생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힐링캠프'는 특집 스타의 삶 전체를 심도 있게 다뤄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원종환 기자

"박보람, 몰라보게 달라졌네"

슈스케 출신…4년만에 활동

엠넷 '슈퍼스타K 2' 출신 박보람(사진 왼쪽)이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박보람은 21일 신곡 '고마워 내 사랑'을 발표하는 홍대광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발탁돼 몰라보게 달라진 미모를 드러냈다. 18일 오전 홍대광의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된 30초 티저 영상 속 박보람은 아픈 아침 연인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의 설렘을 상큼한 미소로 표현해냈다.

이번 곡을 발표하며 최초로 댄스에 도전한 홍대광은 박보람과 뮤직비디오에서 최초로 키스신도 촬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보람의 숨겨진 연기력과 미모에 깜짝 놀랐다. 박보람의 가세로 홍대광의 변신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 기자

권지안 개명 솔비 한정 미니앨범 발매

권지안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한 솔비(사진)의 무한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첫 스페셜 미니앨범 '상큼한 아이스크림 같은 나는 31'을 발표한 권지안은 5월 토크콘서트 진행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번 앨범을 400장만 한정 판매하는 그는 이 중 400장의 앨범에 토크콘서트 초대장을 넣어 팬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1일 발간한 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답게'와 음반 '상큼한 아이스크림 같은 나는 31'을 통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전할 계획이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던 권지안은 그동안 연극 '이기동 체육관'에 출연해 배우로 활동했고, 화가로 변신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앨범에는 일러스트 외에 작사와 전체 프로듀싱까지 맡았다.

/유순호 기자 [illegible]

고은아 노출신 위해 8kg 감량 투혼

'스키지'서 박재정과 베드신 · "컷 사인만 나면 꼬르륵"

27일 개봉할 영화 '스키지'에 출연한 고은아(사진)가 극중 노출신을 위해 8kg을 감량해 화제다.

이 영화는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삶의 의미를 빼앗겨버린 고독한 여자 수연(고은아)과 상대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남자 창민(박재정)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과감하게 그린 로맨스물이다.

18일 배급사 브릿지픽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은아는 맡은 배역을 위해 촬영 전 하루 6시간씩 운동하며 8kg을 감량하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 그 결과 박재정과의 첫 베드신에서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고은아는 "첫 노출 장면이다 보니 건강도 건강이지만 몸매 관리에 주력했다"면서 "촬영 전부터 촬영 끝까지 거의 제대로 먹지 못했다. 컷 사인만 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수줍게 웃었다.

상대역인 박재정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친해진 후 촬영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처음엔 서먹했다. 하지만 재정 오빠와 나이차가 없어서 나를 예쁜 동생을 대하듯 잘해줘서 금방 친해졌다. 그러다 보니 호흡 역시 좋을 수밖에 없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박선현기자

- 속도감 있는 전개
- 완성도 높은 무대

musical review

관객 들었다 놨다

■삼총사

뮤지컬 '삼총사'(사진)는 2009년 한국에서 초연된 이래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내 제작진들의 손에서 90% 이상이 재창작된 버전으로 일본까지 진출해 뮤지컬 한류의 꽃을 피웠다. 이달 초부터는 한국 세종문화회관과 일본 도쿄 국제포럼극장 무대에 동시에 오르며 국내 최초로 한·일 동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이 같은 '삼총사'의 이유 있는 인기와 앞으로 더 큰 무대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 이 작품은 빠른 속도감과 경쾌함으로 남녀노소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관객 중에는 중국인과 일본인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한국 공연에서는 일본 관객을 배려해 일본어 자막을 선보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자막을 함께 선보안 정어 눈길을 끈다.

'삼총사'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통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돌 스타의 무더기 출연 영향이 크다. 그러나 공연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작품은 한 편의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을 감상하는 것처럼 오락성이 뛰어나다.

삼총사와 달타냥이 추기경의 부하들을 상대로 현란한 검투 액션을 펼치는 모습이 눈앞에서 속도감 있게 펼쳐져 흥미진진하다. 극에 잘 어울리는 흥겨운 음악은 미치 주인공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림자를 활용하거나 달리는 마차를 표현하는 등 무대의 완성도도 높다. 극을 한국적인 정서로 각색해 관객의 몰입도도 높였다.

순수하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달타냥(성민·준케이·규·박형식)·송승현), 순정을 간직한 아토스(신성우·유준상·이건명·김형균), 야심을 사로잡는 아라미스(김민종·민영기·손준호), 터프한 상남자 포르토스(김법래·조순창) 등 각 캐릭터가 지닌 매력과 유머러스함은 다양한 배우들의 매력과 어우러져 관객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아이돌 배우들의 기대 이상의 활약이 무더기 출연 논란을 잠아들게 하며 흥행에 날개를 달게 했다. 달타냥 역을 맡은 슈퍼주니어의 성민이나 달타냥의 여인인 콘스탄스 역의 예은은 탁 트인 발성과 가창력으로 배역을 무리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일부 배우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정의만을 부르짖는 캐릭터도 단편적이라 마지막에 다소 힘이 빠진다. 그럼에도 이 공연을 본 관객의 반응은 뜨겁다. 문의 02)764-7857

일제강점기 천재 무용수들의 비극

뮤지컬 '레드슈즈' 공연

레드슈즈

CJ문화재단의 신인 공연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마인즈가 올해 첫 번째 리딩 공연 작품인 뮤지컬 '레드슈즈'(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24·25일 양일간 CJ아지트에서 공연될 이 작품은 안데르센 동화 '빨간구두'를 모티브로 해 일제 식민지 시대 천재 무용수들이 겪는 시대적 소용돌이와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다.

혜인·자경·마모루 등 세 남녀가 주인공이다. 이제 막 무용단 단원이 된 사공 출신 여인 자경은 현대적인 춤으로 시대의 배르인이 된 혜인과 같은 최고의 무용수가 되길 꿈꾼다. 한편 혜인은 모든 걸 가진 듯 보이지만 자신의 대표작인 '레드슈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괴로워한다. 그 배경에는 낮은 신분의 소년이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조선총독부 부장까지 된 마모루와 일본 제국주의가 있다.

각자의 꿈을 향한 열망과 애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의 시대는 결국 주인공들을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간다.

이번 리딩 공연에는 정명은·정상윤·임철수·박지연·남영주·고심호 등의 뮤지컬 배우가 함께한다.

/박선현기자

김래원 "카리스마 보여줄게요"

액션 누아르 '강남블루스'서 이민호와 호흡

배우 김래원(사진)이 영화 '강남블루스'에서 이민호와 만난다.

김래원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김래원이 '강남블루스'의 최종 조율을 끝내고 스크린 컴백을 확정했다"며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리는 만큼 작품과 캐릭터 분석에 매진하고 있으며 강인한 남성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넌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여심을 자극했던 김래원은 '강남블루스'를 통해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강남블루스'는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쌍화점' 등을 연출한 유하 감독의 신작이다. 1970년대 서울 강남을 배경으로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정치 권력과 사회의 어두운 세력이 결탁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누아르다.

/정서윤기자 yswl@

유하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캐스팅 · 신민아 첫사랑 역

배우 유하준(사진)이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캐스팅됐다.

조정석·신민아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지난 1990년 박중훈·최진실이 주연을 맡고 이명세 감독이 연출한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현 시대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재기 발랄하게 그릴 예정이다.

유하준은 극중 부드럽고 담백한 성격에 짝이 신세대 뮤지컬 연출가이자 여자 주인공 미영(신민아)의 첫사랑 최성우 역을 맡아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하준은 2003년 영화 '써클'로 데뷔, 드라마 '다섯 개의 별' '그저 바라보다가' '공주의 남자' '대풍수'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했다. 최근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에서 자유연애주의자 인민석 역을 맡아 박효주와 호흡을 맞췄다.

/장병호기자

임창용 '뱀직구' 살아났다

에인절스전 1이닝 무실점
ML 2G 연속 '퍼펙트투'
컵스 승리 여끌어

임창용(3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또다시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카고 컵스의 초청선수 신분으로 시범경기에 나서고 있는 임창용은 18일 애리조나주 메사의 컵스파크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3-0으로 앞선 5회초에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첫 타자 맷 롱을 유격수 땅볼로 잡은 뒤 존 맥도널드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앤드루 로마인을 2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이후 브레넌 보시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실점 위기에 몰렸지만 한국계 포수 최현(미국명 행크 콩거)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며 이닝을 끝냈다.

컵스가 4-2로 승리했다. 컵스는 0-0이던 3회말 2사 1루에서 에밀리오 보니파시오의 중월 3루타, 라이언 로버츠의 좌월 2루타, 엔서니 리소의 중전 적시타가 터지며 3점을 뽑았고, 임창용을 비롯한 불펜 투수들이 호투하며 승리를 지켰다.

16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1이닝 퍼펙트 무실점을 기록했던 임창용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네 차례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2실점, 평균자책점 4.50, 3탈삼진 2볼넷을 기록 중이다.

한편 임창용과 맞붙은 최현은 3번타자 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최현은 시범경기에서 29타수 5안타, 타율 0.172를 기록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류현진, 에이스펙코퍼레이션과 국내 매니지먼트 계약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27)이 개막전을 앞두고 에이스펙코퍼레이션과 국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스펙코퍼레이션 측은 18일 "에이스펙코퍼레이션은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사로서 국내 관련된 모든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이스펙코퍼레이션 김준기 이사는 "류현진 선수를 시작으로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며 "운동선수라는 특성을 고려해 연예인처럼 무리한 일정과 미디어 노출로 선수 컨디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범경기 출전을 마무리한 류현진은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지는 개막 2차전 선발 출전으로 시즌을 시작한다.

/유순호기자

"우승은 우리 것"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4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각 팀 선수들과 감독들이 우승컵을 놓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임영희, 위성우 감독, 노승 원, 신한은행 최윤아, 임달식 감독, 세키니 스트릭렌, KB스타즈 정미란, 서동철 감독, 모니크 커리. /연합뉴스

박인비 시즌 첫승 도전

내일 개막 파운더스컵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박인비는 20일부터 나흘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에 참가한다. 지난달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공동 4위를 하는 등 우승에 근접한 성적을 거둬 이번 대회에서 첫 우승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9일 막 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미션힐스 월드레이디스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박인비는 올해 첫 LPGA 메이저 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체력이나 정신력, 기량 등 모든 면에서 한층 더 발전했다"며 "퍼팅만 마음먹은 대로 따라준다면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올 시즌 맹활약을 자신했다.

이번 대회에는 박인비의 세계 랭킹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카리 웹(호주)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한다.

/유순호기자

소트니코바 세계선수권 불참

채점 논란 속에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사진)가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한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연맹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4~30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소트니코바를 출전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16)와 엘레나 라디오노바(16)가 이 종목 러시아 대표로 나선다.

연맹 측은 소트니코바에게 휴식과 다음 시즌 준비 기회를 주기 위해 세계선수권대회에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트니코바는 이번 대회 엔트리에 후보 선수로 등록된 데 이어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다음달 1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이스쇼 포스터를 게시하며 참가 일정을 알리면서 세계선수권대회 불참이 예견됐다.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딴 소트니코바는 홈 이점을 얻고 정상에 올랐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고, 이번 대회는 그에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유순호기자

2골 산동에 2골 먹인 포항

AFC 챔스리그 E조 2위

포항 스틸러스가 아시아 최강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수적 열세를 딛고 산둥 루넝과 무승부를 이뤘다.

포항은 1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2014 AFC 챔피언스리그 E조 조별리그 3차전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전반에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내줬으나 이후 김태수, 김승대가 연속으로 골을 터뜨려 동점을 이뤘다.

이로써 3경기 무패를 달린 포항은 승점 5(1승2무), 골득실 +1을 기록하며 산둥(승점 5, 골득실 +2)에 이어 E조 2위를 지켰다. 다음달 2일 산둥과 중국에서 리턴 매치를 치른다.

경기 초반엔 신광훈이 산둥의 진징다오의 슈팅을 막으려다 핸드볼 반칙으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해 위기를 맞았다. 이 때 얻은 페널티킥을 바그너 로베가 넣었다.

이후 미드필더 김재성이 신광훈의 빈 자리를 메우다 또 핸드볼 반칙을 저질렀고, 다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바그너에게 또한번 골을 내줬다. 그러나 전반 32분 주장 완장을 찬 김태수가 만회골을 넣었다. 이어 김승대가 유창현의 볼을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았다. /박진현기자

ACL 조별리그 3차전 18일

포항	2	2	산둥

전자랜드 4강 불씨 살렸다

KT와 5차전서 판가름

인천 전자랜드가 부산 KT를 꺾어 승부를 5차전으로 끌고 갔다.

전자랜드는 1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4차전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72-66으로 이겼다.

1승2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전자랜드는 이날 승리로 2승2패를 기록해 승부를 20일 인천에서 열릴 마지막 5차전에서 내게 됐다. 전자랜드는 5차전에서도 승리하면 2시즌 연속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경기는 수비전으로 흘렀다. 전자랜드의 자책워 김상규, 함누리가 KT의 '주포' 조성민을 3쿼터까지 단 한점도 넣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봉쇄했다. 29-28로 앞선 채 맞은 3쿼터 중반 리카르도 포웰의 골밑 득점과 정영삼의 3점이 연달아 터지며 점수차를 벌렸다. 4쿼터에는 포웰과 정영삼이 17점을 합작했다. 70-65로 앞선 경기 종료 37초전에는 주태수가 2점 슛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포웰과 정영삼은 각각 24득점 리바운드 10개와 18득점을 올렸다.

/박진현기자

프로농구 전적 18일

KT	21	7	19	19	66
전자랜드	17	12	22	21	72